

근육 아저씨와 똥보 아줌마 · 숲

근육 아저씨와 똥보 아줌마 · 호수

조원희 글 ·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고, 다른 이들과 나누기
권장 차시	6~7차시
대상 학년	3학년 이상
관련 주제어	성별 고정관념, 생명 존중, 인권, 감정표현, 다양한 감각 일깨우기, 영상매체
교육 과정 연계	도덕(3도06-04)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요 국어(4국10-01,2) 표정이나 행동으로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국어(4국10-07,8)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만화 영화 보기 국어(5국02-05,6)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읽기 도덕(5도06-04)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요 국어(6국06-01,2)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 짐작하기



작성자 김포 은어울초등학교 이시내

■ 도서 소개

숲과 호수에서 새와 개미, 물고기와 수달을 만나며 평화로운 삶을 보내는 근육 아저씨와 똥보 아줌마의 일상을 소개한다.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작고 여린 생명을 돌보는 시간을 사랑하는 주인공들. 그렇게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다 누군가 곤경에 빠졌을 때는 주저 없이 나서며 여럿이 함께 사는 삶을 잔잔하게 보여 준다. 제목과 인물의 생김새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을 뒤집어 커다란 몸집을 가진 인물들이 조심스레 작은 생명을 돌보는 모습으로, 공존의 삶을 낮설게 바라본다.

■ 학습 목표

-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만화 영화를 보고 내 느낌을 말할 수 있다.
- 내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고 경험을 말할 수 있다.
-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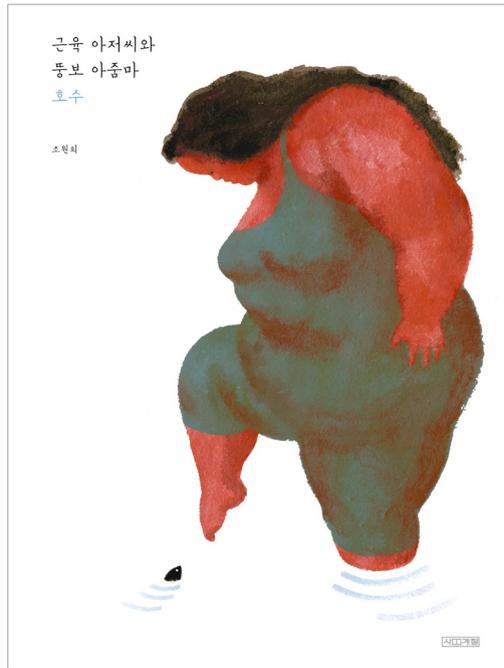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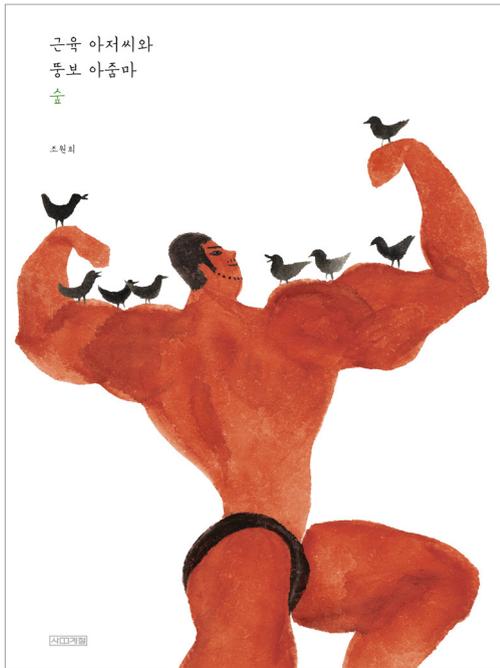
제목과 표지에서 보이는 인물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도록 감정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학습지에 있는 감정 카드를 보고 적어도 좋고, 잘라서 붙이면 마지막 활동에서 다시 확인하니 버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또는 크게 출력하여 칠판에 붙이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책을 읽기 전과 읽은 뒤 생각의 변화를 안내해도 좋습니다. 정형화된 모습과 성역할 인식의 전환도 좋지만, 생명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삶을 나누기를 추천합니다. 글 대신 그림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아이들과 직접 다양한 음악과 소리를 찾아 함께 들으며 책의 메시지를 극대화해 보세요. 어울릴 거라 생각하지 않은 음악을 들어 보는 것도 새로운 감각을 키워 줍니다. 평온하고 잔잔한 풍경을 보며 마음을 풀어내는 자신만의 쉼터를 나눌 때, 아이들의 분위기를 띄워 주려고 초성 게임으로 구성했습니다. 어떨 때 나만의 쉼터를 찾는지, 또한 우리 교실에 이런 공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도 회의해 보세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고, 책 속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학습 과정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책 읽기 앞서	표지 살펴보기 -제목과 인물의 느낌 살피기 -감정 카드로 내 생각 확인하기	1차시
책 읽으면서	질문 주고받기 -책 속 내용과 사건 확인 -인물의 처지에서 생각하기 -작가 의도와 내 생각 파악하기 -다양한 매체로 감각 깨우기 -영화, 음악을 이용해 책이 전하는 메시지 극대화하기 -관계 파악하기 -함께 하는 삶을 나누는 법 -나에게 적용하기 -내 경험에 비추어 생각 나누기	4~5차시
책 읽은 뒤	다시 생각하기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뒤 달라진 점 비교하기	1차시

책 읽기 앞서

1. 표지 살펴보기



- 표지에 있는 제목을 소리 내 읽어 봅시다.
- 표지에 그려진 인물에서 받은 느낌을 다음 장의 감정 카드에서 골라 적어 보세요. 잘라서 붙여도 좋습니다.

감정 카드

신난다

외롭다

즐겁다

몹시

행복하다

두렵다

감동적이다

괴롭다

재미있다

미안하다

든든하다

귀찮다

편안하다

속상하다

활기차다

안타깝다

만족하다

쓸쓸하다

감사하다

허전하다

자신 있다

실망하다

사랑스럽다

창피하다

책 읽으면서

1. 숲 편 질문 주고받기

- Q. 아저씨가 좋아하는 건 무엇입니까?
- Q. 아줌마는 무얼 하다 잠이 들었나요?
- Q. 새가 아저씨에게 소식을 전하고, 개미가 아줌마에게 잎사귀 이불을 덮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 Q. 아줌마는 왜 자전거를 타나요?

2. 호수 편 질문 주고받기

- Q. 아줌마가 좋아하는 건 무엇입니까?
- Q. 물 위에 떠 있는 아줌마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줌마와 함께 있는 동물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 Q. 아줌마와 아저씨는 서로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3. 인물의 처지에서 생각하기



작가는 크고 무서운 두 사람이 좋아하는 생명을 새와 개미로 정했습니다. 나라면 어떤 동물을 좋아한다고 소개할까요?

1) 왜 새와 개미일까요?

2) 내가 작가라면, 근육 아저씨와 똥보 아줌마가 시간을 들여 바라보는 상대를 누구로 정했을까요?

3. 다양한 매체로 감각 깨우기

영화 '모아나'에서 등장인물인 여신이 늑자 그대로 섬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서귀 이불을 덮고 잠이 든 똥보 아줌마, 물 위에 떠 있는 똥보 아줌마와 영화의 한 장면이 대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 영화 '모아나'의 한 장면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1) 영화 장면을 보며 어떤 느낌인지 나눠 봅시다.

※ 영상은 유튜브 디즈니 코리아 채널, [디즈니 프린세스] '모아나 엔딩 다시 보기'를 추천합니다.

2) 영화 장면을 보고 난 뒤 아저씨와 아줌마가 하는 일을 다시 살펴봅시다. 아저씨와 아줌마가 하는 일은 어떤 뜻일까요? 생명 존중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보세요.

3)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고요한 숲과 호수에 초대받습니다. 책 속에는 살랑살랑 바람 소리, 잔잔한 물소리, 커다란 새 소리가 있지만, 실제 숲과 호수에서는 여러 소리가 들리겠죠.

(1) 이 책과 어울리는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추천해 주세요.

(2) 서로 추천한 음악을 배경 삼아 틀어 놓고 다시 책을 읽어 봅시다. 소리를 더하고 읽은 책의 느낌과 소리 없이 읽은 책의 느낌이 다른가요?

(3) 책의 분위기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악을 틀어 놓고 다시 읽어 봅시다. '조스' 메인 OST, '미션임파서블' OST, '캐리비안의 해적' OST, 비발디 '사계' 등을 추천합니다. 음악에 따라 그림책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어 봅시다.

곡 이름:
느낌:

4. 관계 파악하기

1) 아줌마와 아저씨는 서로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줍니다. 그런데 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앞 면지에 나와 있어요. 어떤 힌트가 나왔는지 앞으로 돌아가서 찾아봅시다.



5. 나에게 적용하기

1) 물 위에서 바람 소리, 물소리를 듣고 있는 아줌마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편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는 장소가 있나요? 장소가 아니라면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해지나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초성 게임

나만의 편한 장소나 행동을 초성으로 적어 보여 주세요.

화장실이 편한 곳이면 <ㅎㅈㅅ>으로, 멍하니 있을 때 편하다면 <ㅇ>을 적어서 모둠 또는 분단 별로 서로의 숲과 호수를 맞춰 봅시다.

정답지

내 숲과 호수는 바로

“

”

2) 우리 교실에 마음을 달래 주는 컴퓨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약속한 장소에 가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있을 수 있다면 어때요? 긍정적 타임아웃이라고 해요. 교실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회의해 봅시다.

책 읽은 뒤

1. 다시 생각하기

1) 숲과 호수 편 뒤표지를 보면 달라진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2) 앞표지를 보면서 골랐던 감정 카드를 다시 봅시다. 책을 다 읽고 다시 감정 카드를 고른다면 여전히 똑같은 카드를 고를까요? 아니면 다른 카드를 고를까요?

다시 감정 카드를 골라 적거나 붙여 보고 왜 이 카드를 골랐는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